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0662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801호
Tel. 02-522-7935 Fax. 02-522-7930

www.withu.or.kr
www.facebook.com/WalkingWithUs
walkingwithus.tistory.com

Walking With Us Foundation 2016 Annual Report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2016년 연차보고서

design by www.lalagogo.co.kr

함께 걸어온 희망보고서

함께걷는 아이들

Walking With Us Foundation
2016 Annual Report

INTERVIEW

음악을 향한 열정,
아무도 못 말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기회

SPECIAL

한눈에 보는 함께걷는아이들

현장 스케치

시민과 함께 보낸 2016년

후원자 명단
내 이름을 찾아보세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숫자로 보는 함께걷는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인성, 지성, 감성의 성장을 돕는 문화, 예술, 교육,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올키즈스트라 Allkidstra

'모든(All) 아이들(Kids)의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음악교육(그룹 레슨과 합주, 악기 지원, 다양한 연주 경험 등)을 지원합니다.

450
참여 아동

68
음악 강사(누적)

57
참여 기관

54
연주 활동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단발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 상황에 함께 대처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EXIT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9,473
이용 청소년(누적 횟수)

2,330
이용 청소년(실인원)

172
활동가 교육 참여자 수

프로그램 실행 및 연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복지 실천 분야 연구를
지속합니다.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의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부설연구소입니다.

2
2016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숫자

50
블로그 자료실
포스팅 개수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

악기가 없어서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문화소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 받은 중고악기, 새악기를 선물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545
나눔된 악기

63
아이들에게
악기를 선물한 후원자

올키즈스터디 Allkidstudy

잠재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회가 부족하여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에게 일대일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지도합니다.

265
참여 아동

35
참여 기관

4.6
아동별 평기부여
프로그램 참여 횟수

올키즈스마일 Allkidsmile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다양한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자립을 꿈꾸도록 여건과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만나 자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가에게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자립을 만들어갑니다.

7
참여 기관

123
참여 청소년

78
심무자 교육 및
모니터링 시간

홍보모금

함께걷는아이들의 비전을 공유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다양한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44,637
함께걷는아이들 블로그
방문자 수

630
서울거리예술축제2016에서
나눔을 실천한 시민

175
종이접기 캠페인
참여자 수

한눈에 보는 함께걷는아이들

(2016년 기준)

함께걷는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이사진

이사장
조순실(사.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

이사
고병헌(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류정아(한국아동음악발달 연구소 소장)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은정(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정기(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희경(前 Fairleigh Dickinson Univ. 경영학과 교수)

감사
윤선남(진일회계법인 회계사)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무국

유원선 사무국장
김현주 팀장(음악팀)
이현진 팀장(학습지원팀)
이선미 선임간사(학습지원팀)
김나희 간사(연구홍보팀)
오 솔 간사(음악팀)
황다은 간사(학습지원팀, 연구홍보팀)
박희은 간사(음악팀)
박성아 인턴(연구홍보팀)

자문

이기춘(서울예술대학 이사장)
박주현(국회의원)
유전식(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권미혁(국회의원)

홍보대사

김주원(빌레리나)
신 구(배우)

올키즈스트라 멘토

유형직(KBS교향악단 단원)
이명희(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윤식(성남필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김이청(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김은경(한국아동음악발달연구소 공동소장)
류정아(한국아동음악발달연구소 공동소장)
정호잔(Ed.D.Ct candidate of Music and Music Education)
조인래(발리고교 대표)

함께걷는아이들 파트너

올키즈스트라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SM엔터테인먼트

올키즈스터디
[파트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슈퍼바이저] 조소영, 홍영숙, 박은희, 이혼주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
[파트너] 우리들의 낙원상가
[후원] 삼아프로사운드㈜, 피아니스트 조재혁, 우리들의 낙원상가

올키즈스마일 –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파트너] 인권교육센터 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파트너] 들꽃청소년세상

네트워크 활동
어린이병원바국가보장추진연대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힘이 되어주는 자원봉사자, 올키즈서포터즈
우리은행동역삼동금융센터 임직원 자원봉사단
[올키즈서포터즈] 강도연, 김의연, 박성아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행정지원] 최주희, 이주혁
[사진 촬영] 한국사진봉사단, 고영호, 김영석, 김정민, 정은섭

목차

02 숫자로 보는 함께걷는아이들
05 한눈에 보는 함께걷는아이들
08 여는 글
10 2016 함께 걸어온 발자국
12 올키즈스트라 인터뷰
12 • 사람 사이로 음악이 흐른다
14 • 음악을 향한 열정, 아무도 못 말려
16 올키즈기프트 나눔뉴스
18 올키즈스터디 인터뷰
18 •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영향을 주는 일대일 수업
20 • 이해하는 마음이 만드는 아이들의 긍정적 변화
22 미디어 속 함께걷는아이들
24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 인터뷰
24 • 이해하고, 보듬고, 다독여준 EXIT 버스
26 • 삶이 변화하는 계기를 주는 EXIT 버스가 됐으면
28 시민과 함께
30 올키즈스마일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동' 인터뷰
30 •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기회
32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인터뷰
32 • 잠재력을 더 크게 발현하기 위해
34 활동 지도
36 재정 보고
38 후원자 명단
40 후원 참여 방법

2016 함께 걸어온 발자국

1.12
올키즈스마일
자몽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

1.16
EXIT 버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국제포럼 사례발표

1.26
올키즈스터디
교사 연구활동 보고회

2.16
올키즈스마일
2015 자몽 연구결과 발표회

3.2
홍보모금
올키즈기프트 업무제휴 체결 (우리들의 낙원상가)

4.12~16
EXIT 버스
416기억과행동 청소년실천단

4.25/28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올키즈관악앙상블 간담회

6.9
EXIT 버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6.27~28
올키즈스마일
자몽 중간점검 워크숍

6.29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2016 SWSD 세계사회복지대회 발표

7.12
홍보모금
올키즈서포터즈 발대식 및 OT

7.27~28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ISME 33rd Conference 발표

7.29
EXIT 버스
수원 EXIT 오픈

8~11월
올키즈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찾음' 5회 진행

8.22
올키즈스터디
기관 협약식 및 사업 설명회

8.23~25
올키즈스터디
교사 기초교육

9.23/26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올키즈관악앙상블 간담회

9.30~10.1
홍보모금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협력프로그램 홍보 부스 운영

10.21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12.10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뮤직 어워즈

12.17
올키즈스트라
오니관악단 제1회 정기연주회

12.17
홍보모금
올키즈기프트 with 낙원서포터즈 공연

올키즈스트라
합주 연습: 주 1회
강사 교육: 상하반기 각 1회
음악캠프: 연 1회

올키즈스터디
함께교사 보수교육: 3월, 5월,12월
함께교사 조별연구회: 2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슈퍼바이저 연구회: 격주 1회
워크숍: 연 2회

올키즈스마일
자몽 교육 및 네트워크 모임: 총 7회(월 1회)

EXIT 버스
매주 목요일:
신림역(20시~02시)
매주 금요일:
수원역(20시~01시)

올키즈스트라 인터뷰

사람 사이로 음악이 흐른다

올키즈스트라 트롬본 주자 이상민(가명)

중학교 때부터 올키즈스트라에 참여하여 트롬본을 배웠으며,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단원, OB밴드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인터뷰 이호연

올키즈스트라를 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결해줘서 올키즈스트라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색소폰이 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나중에 트롬본을 하게 됐어요. 아마 트롬본은 팔이 길어야 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청은 했지만 처음에는 다 하기 싫었어요. 애들이 같이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 거죠. 몇 개월 하다가 그만뒀어요.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고 끝나면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쉬고 다시 오디션을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첫해에는 하다가 그만두고 그다음 해에 오디션 다시 봐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다시 오디션을 봤어요?

센터장님한테 설득당해서 초등학교 동생들의 악기 캠프에 따라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동생들 잘 지켜보고 챙겨주라는 부탁을 받고 따라나선 캠프였는데, 그만둔 상태여서 악기도 안 들고 갔었거든요. 캠프에서 애들이 합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들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캠프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악기 할 생각 없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악기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아니까 캠프에서 애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하자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게 만들었으니 완전 영리한 선생님이신 거죠.

지금은 음악이 정말 좋아요?

어느 날 연주하는 곡 첫 음을 부는데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4년 전인가 5년 전이었을 거예요. 수십 번은 트롬본으로 불었던 곡인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기가 재밌는 놀이 도구가 됐어요.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됐죠. 요즘도 가끔 제가 좋아하는 연주 부분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파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연주할 때도 감상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요. 물론 슬럼프도 오죠. 특히 저는 매년 초반에 그래요. 매년 목표가 연말에 정기 연주회인데 일단 너무 멀잖아요. 아직 연습을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매년 중반기가 지나면 곡이 손에 익어서 함께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초반에는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특히 작년 초반에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매년 같은 방식으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쯤에 지휘자 선생님이 멋진 말을 해 주셨어요. "오래 한 만큼 베테랑이 되고 노련해져야지 절대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고. 파트장을 맡고 있었는데도 제가 엄청 나태해졌던 때였는데, 그 말씀에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배들이 더 많죠?

저는 멋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생각 있고 속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랫동안 봐온 동생들이 이제 스무 살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동생들을 "너무 애처럼 대하나?"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져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선지 어엿한 성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특히 여자애들하고는 조금 어색해요. 여자애들 중에 쑥스러움을 타는 애들이 많은데 좀 더 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년 단합여행도 가고 중간중간에 파트 선생님과 함께 밥도 먹지만 친해질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지역아동센터 애들보다 올키즈스트라 사람들을 더 정기적으로 만나니까요. 올키즈스트라에 어린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꿈나무반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잘 자라서 올키즈스트라를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상위관악단이 생긴 게 다행이에요. 지역관악단에서는 어린 애들을 위해서 쉬운 곡을 하게 되죠. 그럼 실력 향상이 서로 안 되거든요. 상위관악단이 생긴 것도 잘된 일이고 거기서 다시 졸업생이 모인 OB밴드가 생겼다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함께걷는아이들 선생님들이 계속 생각하셔서 이런 단계를 만들고 바뀌는 게 좋아요. 함께걷는아이들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OB밴드도 선생님이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대화하면서 일을 진행하거든요. 아쉬운 건 지금 OB밴드에 인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게 아쉽죠. 친구들이 더 많았을 때가 그리워요.

올키즈스트라를 하면서 배운 점은?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올키즈스트라를 안 했으면 클래식 음악은 몰랐을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주곡에서 어떤 악기가 나오고 구성이 어떻고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서 좋아요. 사실 저도 클래식 음악 10분짜리 지루해서 다 못 들어요. 저도 아직 듣는 거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제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듣는 게 확실히 더 재미있어요. 클래식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확실히 듣는 것보다 하는 게 재미있다는 거요.

> 수십 번은 트롬본으로 불었던 곡인데
>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 그때부터 악기가
> 재밌는 놀이 도구가 됐어요.

여기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런 만남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배운 게 많으니까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악기를 하는 게 여기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반년 정도 다녔어요. 그곳에 자재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트롬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점이 통해서 그분이랑 친해졌어요.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올키즈스트라가 좋은 이유는?

악기 연주를 하는 것도 즐겁지만 더 좋은 점은 올키즈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8년 정도 함께 하다 보니 가족처럼 정이 많이 들었죠. 제가 먼저 동생들한테 다가가서 장난치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챙겨주고 싶어요. 동생들도 저한테 친하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고요. 악기 선생님이 "너는 장가가기 전까지 해야지" 하시는데 진짜 그리고 싶어요. 장가가서도 시간이 되면 하고 싶고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여기 아이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올키즈스트라 인터뷰

음악을 향한 열정, 아무도 못 말려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 이사장 이영심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함께걷는아이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인터뷰 김나희 · 사진 촬영 김나희 / 장경희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을 소개해 주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대다수였어요. 오직 지휘자님, 강사님, 센터장님과 아이들의 열정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현재 42명의 아이들이 있고 8명의 강사님, 지휘자님, 간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함께 하고 있었는데 2016년 2월에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2개 기관이 빠졌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여전히 열심히 활동 중이고, 이제는 법인으로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모집하셨나요?

지역아동센터에 모집광고를 해 왔어요. 광고를 보신 센터장님이 관심있는 아이들을 보내주셨고요. 많이 오는 센터에서는 8명, 적게는 3명 정도의 아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했어요. 사단법인이 된 후에는 더 오픈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에요.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열정.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 초창기에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연합캠프를 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음악캠프였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다른 팀들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배웠던 곡을 연주하는 모습이었어요. 악기가 없는 파트는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의 음악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꼈어요. 아이들과 함께해 준 지휘자님과 강사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셨고요. 그런 열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김해관악단이 된 것 같아요. 전공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음악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매년 음악을 전공으로 삼는 친구들도 배출되고 있고요.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의 원동력은 뭘까요?

열정과 단합.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혼자서 끌고 가려고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센터 관계자들, 아이들, 지휘자님, 강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까지 보태져서 큰 힘이 되었어요. 공간이 없어서 악기를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아이들 사연을 듣고 연습실 마련을 도와주시기도 했고, 동장님이 매세나 관계자를 연결해 주기도 했어요. 이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념으로 모두가 힘을 모은 것이 원동력이 된 거죠.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저녁마다 거리를 배회하던 아이들이 요새는 시간만 나면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내요. 지적장애가 있어서 정박자도 못 맞춰던 친구가 있었는데 타악기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이끌어주셔서 지금은 지휘에 맞춰서 아주 빠른 스피드의 연주도 해낼 만큼 성장했어요.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더니 성적이 오른 아이들도 있고요.

2016년 김해관악단에게 일어났던 가장 행복한 일은?

경제적인 문제로 음악을 포기할 뻔했던 조손가정 친구가 있어요. 할머니와 고모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이 친구가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올키즈스트라 음악전공생 선발에 도전해서 합격하고 후원을 받게 되었죠. 가족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이런 친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즐거움이에요.

올키즈스트라가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전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취미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음악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통학 차량을 운영해서 아이들 교통비로 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김해관악단이 자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심정이었나요?

저는 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설장을 맡고 있는 씨앗행복한홈스쿨 안에 씨앗앙상블이라는 팀이 있어요. 소정의 프로그램비를 지원받아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계속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행복한 변화를 확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악단을 떠올렸는데, 우리의 뜻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자립을 하는 게 맞죠. 함께걷는아이들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려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것이 참 감사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멋지게 성장해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친구들에게 꼭 돌려주자'는 얘기를 했어요.

자립의 방법으로 사단법인을 선택한 이유는?

자립해야겠다는 의지는 확고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협동조합이나 일반단체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온전한 자립은 힘들듯 싶어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죠. 과정 중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좋게 봐 주신 행정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1순위예요. 강사님들과 지휘자님이 상주하면서 언제 아이들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실을 만드는 것이 꿈이죠. 함께걷는아이들에서 받은 지원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음악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커다란 의미의 자립이고요. 솔직히 지금은 당장 닥친 일들이 많아서 큰 꿈을 꾸기보다는 법인으로서의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을 널리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김해에서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적이죠. 처음 기획서를 쓰면서 엘시스테마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 엘시스테마처럼 우리 아이들은 기적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감동이 있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김해에서 저희를 보는 시각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올키즈스트라 김해관악단의 미래의 모습은?

5년 뒤에는 함께걷는아이들에서 하는 것처럼 실력 있는 상위관악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1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강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초창기 단장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단법인 왜 하냐고 했을 때 저는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쭉 가고 싶어서라고요. 힘들지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오픈해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것 염려 안하셔도 돼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섰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시선을 받기도 했어요. 저희를 지켜봐 온 분들에게 조심을 잃지 않고 투명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함께걷는아이들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자랑거리로 남겠습니다.

>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더니 성적이 오른 아이들도 있어요.

올키즈기프트 나눔뉴스

'우리들의 낙원상가'와 함께 한 올키즈기프트

2016년 3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가 캠페인에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재능기부와 캠페인 홍보, 그리고 악기 나눔으로 동참했습니다.

재능기부 참여 업체

기타 에클레시아(박주일 대표), 세영악기(이세문 대표), 경은상사(김지하 대표)
음향기기 유일뮤직(유강호 대표), 온누리음향(정병석 대표)
드럼 드럼채널(정구항 대표)
관악기 베델악기(김연성 대표)
현악기 한양악기(최신해 대표)
관현악기 지윤악기(박경배 대표), 진성악기(유재복 대표)
전자피아노 종합전자(안상호 대표)
피아노 명품피아노(황창연 대표)

"재능기부로 참여하게 되어 보람되고 굉장히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양악기 최신해 대표

일렉기타 등 411개의 악기를 기부한 삼아프로사운드

삼아프로사운드에서 선물한 악기들을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청소년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177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 청소년에게 전달했습니다.

533명의 아이들에게 나눔된 악기

악기가 없어 음악을 배우기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올키즈기프트로 아이들의 행복한 연주가 전국 곳곳 가득해집니다.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악기를 같이 사용해서 불편했는데 나만의 악기가 생겨서 신나요! 이제 마음껏 음악을 배울 수 있어요."

광현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소중한 악기를 나눠준 63명의 기부자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악기를 기부해 준 기부자님 덕분에 아이들에게 음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 기부로 악기 나눔 캠페인 동참

나눔 콘서트가 인연이 되어 올키즈기프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조재혁님의 후원으로 문화예술 교육 소외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 등 6곳에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올키즈스터디 인터뷰

기초학습 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영향을 주는 일대일 수업

연천지역아동센터장
서희정

일대일 교육 프로그램, 티칭 스킬 등의 교사 교육 지원 등 올키즈스터디 사업 지원을 2015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나희 · 사진 촬영 최인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 개소는 2007년 10월 22일에 했어요. 그 전에는 경기도 특색사업인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을 7~8년 운영했었고요. 정원이 11명이었는데 영유아 말고 초등학생만 돌보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보기 위해 보육시설은 폐쇄 신고하고 과외를 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서 과외비는 일반 학원 반값만 받았죠. 제가 조실부모해서 그런지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남 같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쑥쑥 오르고, 다른 아이들도 계속 찾아와서 28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했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회복지 공부도 하게 되고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도 알게 됐죠. 공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센터를 운영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연천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지금 시설은 연천군청에서 허가해줘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연천은 농촌지역이고 접경지역이다 보니 허허벌판이 많아요. 면적이 서울시보다 넓은데도 인구가 5만 명이 안 된답니다.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현재 저희 센터 등록아동은 27명인데 미취학 아동 1명, 중고등학생 2명, 초등학생이 24명이에요. 가정형편별로는 21명이 저소득가정이고 이들 중 8명은 한부모가정이에요.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8명 있습니다.

이용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저는 십수년간 연천 아이들만 겪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아이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이 말씀하시길 우리 센터 아이들은 순하고 착하고 딱히 모난 아이들이 없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센터에 아이들이 입소하면 '여기는 학원이 아니라 너희들을 돌보는 두 번째 집이다. 선생님은 그냥 큰엄마, 작은엄마이고 너희들은 성이 다른 형제들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서로 잘 배려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들이 형에게 의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큰 자랑이죠.

아이들 자랑 더 해 주세요.

우리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소속된 학교는 크게 세 곳이에요. 상리초등학교와 대광초등학교에서는 1~2명 오고 대부분이 가까이 있는 연천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센터에서 직접 픽업해 오는데,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센터 선생님이 데리러 오실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준비를 미리 다 하고 즐겁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우리 센터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참 기뻐요.

올키즈스터디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대일 기초학습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했어요. 시골의 지역아동센터는 공익요원 등 인력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 법정종사자와 아동복지교사의 힘으로만 29명이라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줄 여력이 없어요. 올키즈스터디에 대한 정보를 접하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기초학습이 부족해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때 기초를 다져주고 싶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아이들도 기초만 탄탄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위권에 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기초학습이 부족하면 아무리 기를 써도 안 되는 일이죠. 다행히 우리 센터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시절에 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올키즈스터디에서 신경써주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마음이 편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대일 지도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인력 문제가 가장 크죠.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에 한 아이만 붙잡고 학습지도에 매달릴 수가 없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하니까요.

아이들이 수업을 좋아하나요?

대체로 참 좋아해요. 센터 선생님들에게 안 하는 이야기를 올키즈 선생님에게 털어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을 오래 돌봤던 분이라서 눈높이를 잘 맞춰주시고 마음도 잘 헤아려주시거든요. 올키즈선생님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수업 중에 간파해서 알려주시기도 해요.

올키즈스터디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1차적으로 기초능력 향상을 바랐는데 학습능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일대일로 눈을 마주치며 오랜 시간 지도해 주시니까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성적 이외에도 아이들의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생활지도를 같이 해주시니까요. 언행이 무척 거칠었던 아이가 눈에 띄게 순해지고 부드러워진 경우도 있어요. 학교와 센터와 올키즈스터디 선생님이 함께 사랑과 관심을 기울인 덕분이겠죠.

올키즈스터디 일대일 수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대일 수업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초학습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니까 아이들 정서에도 굉장히 좋고요.

> 시골의 지역아동센터는 인력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올키즈스터디의 지원이 간절했어요.

올키즈스터디 인터뷰

이해하는 마음이 만드는 아이들의 긍정적 변화

올키즈스터디 슈퍼바이저 조소영

2012년부터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터디 교사로, 2015년부터는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나희 · **사진 촬영** 이청원

올키즈스터디 교사로 함께하게 된 계기는?

2012년에 올키즈스터디 교사를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엄마가 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아이들 기초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를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봤는데 이름이 너무 맘에 들어서 지원하게 됐고, 함께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내 아이만 '독주'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라는 말에는 우리 모두 어울려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걷는다는 말이 참 좋았어요.

교사로 활동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동은?

함께교사로 처음 인연을 맺었던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는데 학습부진도 문제였지만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어요. 어른들에게 인사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사람들에게 예쁨받고 싶어서 토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씩 뭔가를 알아가는 기쁨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본인의 의사가 남들에게 전달되는지도 알게 되고, 꿈도 요리사로 바뀌었어요.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이 참 기뻤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장 고민했던 점은?

함께교사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기초교육을 꽤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만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보니 학습수준이 제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눈높이를 더 낮추고 개념 설명부터 차근차근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서 힘들었죠. 기초교사인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고 눈을 맞추면서 답을 찾아나갔어요. 꾸꾸사이트, 3Rs 교재를 보면서 연구도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 만날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칠 계획인지?

제가 세워둔 계획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기초학습부진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공부하는 태도, 생활습관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걸 아니까요. 이제는 아이들 각자의 특징부터 충분히 이해한 후에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해요.

교사와 슈퍼바이저로서의 경험을 둘 다 갖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같은 동료이지만 선생님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슈퍼바이저인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에게는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선생님들도 저마다 확고한 교육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조언을 드릴 부분은 많지 않아요. 다만, 먼저 시작했던 교사로서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학습보다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슈퍼바이저는 어떤 일을 하나요?

기초학습부진 아동 선발을 위한 사전평가,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교재 선정, 수업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을 우선 하고요. 사후평가 나가서 아이들 진단평가도 하고 최종피드백 작성도 맡고 있어요. 신규교사 교육도 진행하고, 슈퍼바이저와 함께교사가 머리를 맞대는 연구회도 운영해요.
교사교육이나 연구회를 통해 얻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힘을 얻게 되죠. 참여도에 따라서 선생님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요. 학습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변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힘들었던 점은?

감정기복이 심하거나 무기력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봐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는 참 힘들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죠.

기초학습부진 아동에게 올키즈스터디는 어떤 의미인가요?

삶의 전환점. 어떤 사고로 갑자기 땅 속에 갇히게 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의미. 아이들에게 그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올키즈스터디의 강점은?

일대일 수업이죠. 주 3회 50분 수업을 하면서 일대일 지도를 받게 되잖아요. 기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독립공간을 내어주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충분히 교감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강점이죠. 일반적인 교과부진 지도가 아닌 기초학습부진 지도라서 아이들이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지도한다는 것도 특별하고요.

올키즈스터디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며 제 시야가 넓어진 것.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2016년 올키즈스터디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나요?

수업에도 중점을 뒀지만 기관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썼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고, 보고회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회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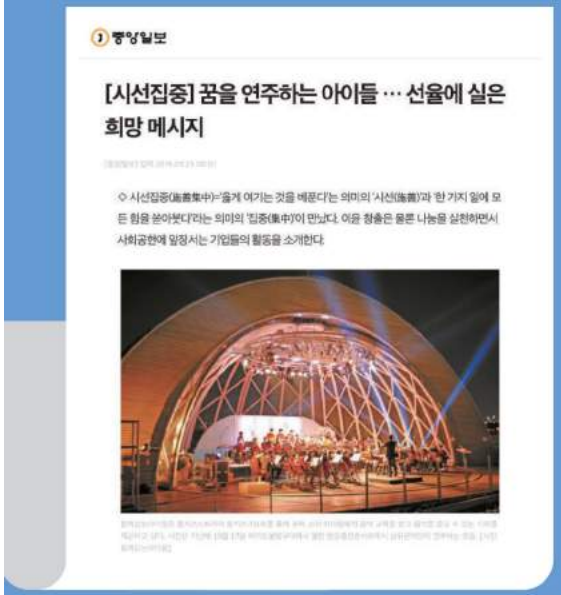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제 멘토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극을 받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 그 아이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씩 뭔가를 알아가는 기쁨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미디어 속 함께걷는아이들

신문


중앙일보

[시선집중] 꿈을 연주하는 아이들 … 선율에 실은 희망 메시지

◇ 시선집중(施善集中)='올게 여기는 것을 베푼다'는 의미의 '시선(施善)'과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다'라는 의미의 '집중(集中)'이 만났다. 이윤 창출은 물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중앙일보 [시선집중] 꿈을 연주하는 아이들 … 선율에 실은 희망 메시지 2016.9.23

음악을 접하면 아이들은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서 뚜렷하게 좋아진다. 함께걷는아이들이 운영하는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에서 올키즈스트라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올키즈스트라(Allkidstra)는 '모든(All) 아이들(Kids)의 희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으로 문화 소외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께걷는아이들이 2010년부터 전개하고 있다. 함께걷는아이들은 올키즈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 2013년부터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Allkidsgift)도 진행하고 있다. 악기가 없어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악기 나눔으로 음악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5,213개의 악기가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페이스북

올키즈스트라 음악 강사의 모든 것 2016.12.21

올키즈스트라 음악 강사의 일상을 통해 올키즈스트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을 소개한 코믹 영상

학대 피해 아동의 간절한 신호, 시그널 2016.3.17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학대 피해 아동의 간절한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카드뉴스

라디오

TBS FM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 2016.4.6

유원선 사무국장이 인터뷰이로 참여하여 함께걷는아이들과 사업 소개

방송

SBS 희망TV '괜찮은 친구들' 2016.11.18

'희망TV SBS'가 '즐거운 기부, 재미있는 기부'를 표방하며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나눔 아이디어로 소개

KBS1 나눔의 행복 기부 2016.6.4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로 기부된 악기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되는지 기부 과정을 소개

블로그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 2016.10.26

함께걷는아이들 공식 블로그의 인기글로 다문화 가정 아동 현황과 교육 실태를 살펴본 포스팅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학습결손,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결손은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는 중요 요소로, 이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기능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능력의 발달 지체와 관련이 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 인터뷰

이해하고, 보듬고, 다독여준 EXIT 버스

EXIT 버스 이용 청소년 나무(가명)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년간 EXIT 버스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현재는 공방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자립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 인터뷰 이호연

학생 시절은 어땠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가출은 안 했지만 외박은 했죠. 그때는 애들하고 놀고 싶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다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애들이 모여 있으면 사건이 날 때가 있잖아요. 집단 폭력 같은.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건에 휘말리니까.

중학교를 엄청 힘들게 졸업했어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60일 빠지면 등교정지를 당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60일이 되는 마지막 날이 졸업식이었는데 등교정지 상태니까 졸업식에도 오지 말라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교복도 입고 있었는데, 전화 받고 계속 울었어요. 졸업식은 마지막 추억이니까 꼭 가고 싶었거든요. 억울했어요. 딱 한번 그런 건데 졸업식에도 못 오게 하니까. 그래도 친구들 보러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친구들 졸업하는 모습 보면 제가 힘들어할까 봐. 학교에 가도 졸업장을 같이 못 받으니까 마음만 아프다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 졸업장은 받았는데 돈도 이미 낸 졸업앨범은 아직도 안 받았어요.

학교는 학생을 이해하기보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선생님 말은 맞고 학생 말은 틀리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고민 상담을 해도 네가 잘못했다는 식이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지." 모든 이야기의 끝이 그거예요. 그런 게 싫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오리엔테이션에 갔었는데 등록금 내기 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에 적응 못하니까 제대로 못 다닐 것 같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학교 다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바리스타도 하고 싶고 네일아트도 하고 싶고, 동물도 좋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학교에서는 하루하루가 다 똑같고 지루했거든요. 학교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EXIT 버스를 만나게 됐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생일에 아는 언니들이 재미난 곳에 데려가겠다고 간 곳이 EXIT 버스였어요. 그때는 엄청 낯을 가려서 한번 들리고 안 갔는데 부천 북부역에 EXIT 버스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한번 가 보자고 해서 들어갔다가 4~5년을 계속 다니게 됐죠. EXIT 버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지원해주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덕분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몸 불편한 사람들이 오는 밥차인 줄 알았어요.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해졌고 선생님들이 엄청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을 전혀 몰랐는데, EXIT 버스 덕분에 다른 기관들도 가 봐서 이제는 익숙해졌죠.

EXIT 버스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EXIT에 처음 왔을 때 엄청 포근하다고 느꼈어요. 밝고 인자하고 마음이 넓다고 할까. 저희를 잘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요. 겪어보니까 선생님과 활동가는 달라요. EXIT 버스 선생님들은 활동가잖아요.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활동가는 청소년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같이 지내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신기한 게 몇 분 후에 선생님이 저한테 다시 와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요. 제가 오히려 미안한데 어른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까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EXIT 버스는 다른 기관하고도 달라요. 다른 기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막 대하면 일단은 다그치고 지적하죠.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이해 못하는데 넘어가 준다는 식으로. 그건 진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널 이해해' 하는 거죠. 그런데 EXIT 버스는 저희가 잘못한 걸 이해해줘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한 거구나 하고 말해줘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걸 깨닫게 돼요. 이해를 행동으로 보여줘요. 진짜 이해를 해주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EXIT 버스 선생님들은 이해를 잘 해주고 보듬어주고 다독여줘요.

EXIT 버스에서 한 일은?

EXIT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동안 시간을 참 잘 보냈어요. 행사도 많이 가고, 세월호 집회에도 가고, 퀴어 퍼레이드에도 가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동물을 엄청 좋아해요.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가면 버려진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할 일도 많아요. 사람들이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요. 강아지는 장난감이 아니니까.

저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끌리면 그냥 해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해보자 생각해요. 그래서 EXIT 버스에서 추천한 인터뷰도 했고 대학교 가서 강의도 했어요. 선생님이 되려는 대학생들 앞에서 거리에 나온 청소년에게 필요한 걸 말하는 강의였어요. 제가 은근 낯도 가리고 매번 긴장도 하는데 일단 해보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펑타(평범한 타격의 준말)는 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경험도 해봐서 나중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걸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끈기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후회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인턴십을 시작한 지 3, 4개월 됐는데 뿌듯해요.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5일 일해요. 지금 제가 하는 건 한지와 가죽 공예예요. 십대 여성들이 일하는 공방인데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재밌어요. 새로 사람들이 와도 금방 친해져요. 얘기하면서 만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지공예는 서랍이나 거울을 만들고 가죽공예는 여권 지갑, 책갈피, 카드 지갑, 동전 저금통을 만들어요. 완성품을 봤을 때 보람 있어요. 사람들 손재주가 좋아서 금방금방 팔려요. 돈을 벌 수 있어서 시작한 일인데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생활할 수 있는 용돈과 핸드폰 비용 정도는 돼요.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데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일급제여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데 조금 더 오래 다니면 주급제도 되고 월급제로 바뀐대요. 3년 정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적성에 맞는 곳으로 연결해준다고 하니까 계속 해보려고요.

EXIT 버스를 한마디로 한다면?

병원. 모든 걸 다 치료해줬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고민도 같이 보듬어줬어요. 친구, 가족관계 다 힘들다고 생각했으니까.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나온 고민도 EXIT 버스에 가서 물어볼 수 있었어요. '나는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을 들어주니까 그런 게 좋았어요. 제가 고민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들어주기만 해도 저는 좋았거든요. 누구든 들어줘라가 아니라 일단 편하고 친하니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EXIT 버스를 소개할 때 길거리 청소년이 오는 곳이라고 말해요. 청소년들이 길 가다가 들릴 수 있고,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배고프면 밥 먹고 갈 수 있고, 아프면 와서 치료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꼭 가출이 아니어도 집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힘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면 들렀다 갈 수 있는 곳이 EXIT 버스인 것 같아요.

> 이해를 행동으로 보여줘요.
> 진짜 이해를 해주는 건 느낌으로
> 알 수 있거든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 인터뷰

삶이 변화하는 계기를 주는 EXIT 버스가 됐으면

EXIT 버스 활동가 쫑(가명)

함께걷는아이들과 들꽃청소년세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에서 상근활동가로 활동했습니다.

· **인터뷰** 김나희 · **사진 촬영** 김성근

EXIT 버스를 소개해 주세요.

EXIT 버스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언제나 신림역과 수원역에 서 있어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밥도 먹고 필요한 것도 가져가고 대화도 나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상임활동가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예전에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했었는데 여성청소년들을 만날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스스로가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10대 여성청소년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앨리스(청소년들의 주체적 주거 공간)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EXIT 버스를 소개해줘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운영보고서를 봐서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EXIT 버스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떠들고 노는 것. 여성청소년들과 만나서 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수다 떠는 거요. 버스에 필요한 사소한 것들을 챙기는 것도 제 일이고요.

직접 활동을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은 없었나요?

이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겪어보니까 기대했던 바 그대로네요.

EXIT 버스를 찾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오는 공간이죠. 밤 8시 이후에 운영하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거나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잘 안 와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들이 주로 온다고 봐야죠. 또래들보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할까요.

EXIT 버스에서 청소년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청소년을 만난다기보다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낯선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혹시 내가 청소년들에게 권위적인 사람이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항상 해요. 그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갖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서 그 친구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동등한 관계로 만나고 싶어요.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역시 밤을 새워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들죠. 활동가들이 오후 5시에 모이는데 다음날 새벽 5시에 끝나요. 술 마시며 수다 떨 때는 밤새는 건 자신 있었는데, 이 공간에서는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하니까 체력이 빨리 소모되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에도 버스에 사람이 많아요. 갈 곳 없는 사람들, 집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버스를 찾는 거죠.

처음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하우가 있다면?

'이곳에는 재미있는 것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소개하면서 유쾌하게 친해지려고 해요. 말수가 적은 친구라면 게임도 하고 타로도 하면서 함께 놀아요. EXIT 버스에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EXIT 버스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점은 뭔가요?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찾게 되면 좋겠죠. EXIT 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과 인연들을 꼭 만났으면 해요. EXIT 버스를 찾아오는 친구들은 참 씩씩해요.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용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든든한 동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돼요. 저도 그들과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2016년에 EXIT 버스가 수원에 정착했어요.

안양, 시흥, 수원 중에서 한 곳을 고르기 위해 6개월 간 지역조사를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직접 현장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수원에 계신 분들도 EXIT 버스가 와 주면 좋겠다고 반겨주셨고요. 혼잡한 지역이라서 버스를 어디다 세워야 할지 걱정했는데, 수원시의 협조로 역 앞의 셔틀버스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 EXIT 버스는 계속 돌아다녀요.

EXIT 버스의 2016년 최대 이슈는?

EXIT 버스를 이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활동을 꾸려오던 멤버들이 많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관계를 다시 맺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EXIT 버스 활동의 의미를 청소년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수원에서 'EXIT 버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필리버스터를 했었던 게 기억나요. 어떤 청소년이 EXIT 버스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줘서 활동가들이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EXIT 버스는 어떤 곳인지,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는지 궁금해서 의견 발표 후에 노래도 한 곡 뽑는 필리버스터 노래방을 열었는데 재미있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주 오랜 시간 나눴어요. 물론 노래도 끝내줬고요.

EXIT 버스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공간에 있으니까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요.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 EXIT 버스는 계속 돌아다녀요. 그 지역에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쉼터 같은 공간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떠나죠.

EXIT 버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노하우는?

2011~2015 안산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정리해보니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리스트만 20장 넘게 나왔어요. 청소년기관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있다면 연계하려고 노력했어요.

2017년에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려고 해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깊이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EXIT 버스에 필요한 자원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기관과 연계가 되었으면 해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한 청소년들의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기관과 힘을 합해서 EXIT 버스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시민과 함께

175.45km '찾음'이 찾아간 거리

2016년에는 정기연주회 대신 **찾아가는 음악회 '찾음'**으로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은 '찾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웃음을, 교남동 주민에게 즐거운 주말을, 외암민속마을 방문객에게 전통과 클래식의 조화를, 자생한방병원과 성모실버홈 환우에게 위로를 선물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홍난파가족야외공간에서

08월 13일	'나눔의 집' 광복 71주년 및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 18주년 기념행사 오프닝 공연
09월 10일	'제99회 교남동 돗자리 음악회' 야외 공연
10월 15일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야외 공연
10월 29일	'성모실버홈' 찾아가는 음악회
11월 05일	'자생한방병원' 힐링콘서트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협동화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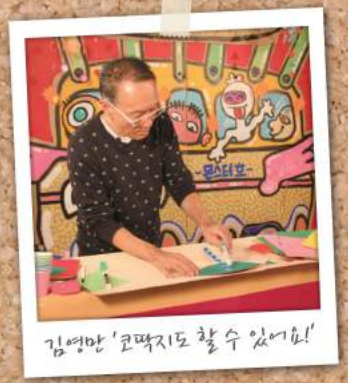
160개의 그림 조각

함께걷는아이들은 9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서울거리예술축제2016에서 '함께 만드는 연주회' 협력 부스**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색칠한 그림 조각 160개를 이어 무대 배경을 완성하고 그 앞에서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금관앙상블**이 신나는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그림 조각 색칠뿐 아니라 뽑기 나눔, 설문, 서명으로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숫자 5152

함께걷는아이들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해 연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16에서 거리 서명을 받고 온라인 서명 운동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10월 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함께걷는아이들이 2017년에도 함께 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김영만 '코딱지도 할 수 있어요!'

175명의 종이접기

종이접기로 **문화소외 아이들을 후원**하는 '코딱지도 할 수 있어요!' 175명이 접어 준 꽃, 새, 요술수첩 개수만큼 후원금이 적립되었습니다.

4개월의 동행

올키즈서포터즈는 함께걷는아이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행사 자원봉사로 4개월간 함께했습니다. 쉽지 않은 미션임에도 즐겁게 임해 준 서포터즈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상위관악단 음악캠프, EXIT버스 일일 체험은 내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거리청소년들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는 오롯이 그들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EXIT버스 일일 체험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이러한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의 문제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올키즈서포터즈 2기 김의연

올키즈서포터즈 해단식

올키즈스마일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 인터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기회

늘푸른자립학교 교사 윤애경, 신선웅

늘푸른자립학교 교사로, 2015년부터 함께걷는아이들의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나희 · **사진 촬영** 김성근

늘푸른 자립학교에 얼마나 있었나요?

윤애경(이하 윤) 올해로 6년 차예요.

신성웅(이하 신) 저는 실무교사가 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 전에 진로교사로 늘푸른자립학교에서 2010년부터 올해로 8년째 있었고요.

늘푸른자립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윤) 가정 밖에 있는 친구들,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양한 재미를 누리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세요.

윤) 늘푸른자립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학교 안에서 세 가지 재미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앎재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려는 친구들에게 교과과목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맘재미' 프로그램인데,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캠프도 다니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시도해요. 세 번째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일재미'예요. 우리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학력취득 말고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을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진로탐색수업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어요.

1년 동안의 활동을 박람회나 체험축제로 공유하는 것이 청소년들과 늘푸른자립학교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신) 예전에는 예술제와 수료식을 함께 했었는데 1년 동안 어떤 수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박람회'라는 공유의 장을 만들었어요. 이 자리는 아이들을 1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교사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낄 기회예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윤)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가 부여해 준 이미지 안에 갇혀 살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늘푸른자립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면 타인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발견한 새로운 '나'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나박람회예요. 다른 수업발표회와는 차별성이 있는 시간이죠.

자몽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윤) 일선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마다 가진 끼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걸 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자몽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미 짜여있는 커리큘럼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본인들과 맞지 않는 과목에는 적극성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좀 더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죠.

그중에 '나는 뭘 해도 안 돼요.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이대로 살래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연한 기회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접하게 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본인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찾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도록 이끌어주면 엄청나게 성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자몽에서 '자립지원프로젝트'에 관련된 공문이 도착했어요. 이 프로그램과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굉장한 시너지가 생길 것 같은 기대감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죠. 실제로 예전과 비교해보면 수업 참여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우리 예상이 맞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자몽에 함께 해왔는데 성과와 바라는 점은?

신) 첫해에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2년 차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요. 학교 밖, 가정 밖 친구들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호흡이 짧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몽을 통해 얻는 즐거움으로 채워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3년 차 신청하면서는 '관계'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이번에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랑 하는지가 중요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랑 잘 통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면 뭘 해도 재미있다'는 뜻이죠.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 안에서 지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매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 큰 성과이고, 아이들의 성장에 발맞춰 목표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늘푸른자립학교에게 자몽은 어떤 의미인가요?

윤) 우리 학교의 철학인 자율성과 주도성을 아이들의 삶 속에 심어주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산,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고요. 자몽을 만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것을 시도할 기회가 온 거죠. 자몽이 아니었으면 제한 없는 지원, 평가 없는 도전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몽 덕분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해요.

자몽을 통해 얻은 것 한 가지를 꼽자면?

윤) 내일을 꿈꾸게 된 것. 우리 친구들도 내일은 무엇을 해볼까 생각하고, 저희 실무자들도 다음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해 볼까 고민하면서 설렐 수 있는 것.

신) 자몽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룰 수 없었던 꿈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실무자로서 함께걷는아이들과 자몽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긴 호흡으로 계속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원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주춤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서로를 잘 알고 신뢰도 쌓였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학교에서 잘 진행된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좋은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몽'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 굉장히 좋아해요. 이 학교를 자기 영역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자몽이 되는 것 같아요. 검정고시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다니고 싶어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어요. 처음 자몽 프로그램에 와서 기타반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 기타를 빌려가더니 원서를 받아갔어요. 낯선 공간에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준 거죠.

자몽 참여 전과 후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신) 예전에는 아이들의 자립을 생각해보면 안타깝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쉼터에서 사는데 성인이 되면 그 쉼터에서 나가야 하니까요. 지금은 자립이란 말을 청소년과 함께 사용하면서 뭔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삶의 주도성을 갖는 것,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 우리 친구들도 내일은 무엇을 해볼까 생각하고, 저희 실무자들도 다음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해볼까 고민하면서 설렐 수 있는 것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인터뷰

잠재력을 더 크게 발현하기 위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재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으로 2016년 올키즈스트라 비용 효과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 김나희 · **사진 촬영** 이청원

함께걷는아이들과의 인연은?

2016년도에 올키즈스트라 비용효과분석을 진행했어요. 올키즈스트라의 모델(앙상블, 관악단)에서 나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업을 위해 지원한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죠. 각 모델의 특징과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현 상태를 진단해서 향후 사업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까 고민하는 연구였어요.

연구결과는 어땠나요?

구체적인 결과는 모든 연구와 평가가 마무리되는 4월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연구결과가 명확하게 해답이나 정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가지표라든지 비용지수 산정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장과 이론의 괴리를 고려해서 더 보편적인 모델을 만들거나 새로운 평가척도를 개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구를 진행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참 어려웠어요. 저마다 여건이 다른 지역들을 같은 잣대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연구가 기존에 해 왔던 연구들과 비슷한가요?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구들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런 연구들을 해 왔고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얼마나 이익을 많이 냈는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렵더라도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걷는아이들에서 같이 연구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점에 이끌려 수락을 했나요?

지자체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례를 접해왔지만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제가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은 어떤 사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드는 거였어요. 올키즈스트라 사업은 수년간 검증된 두 가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하면 좋은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수락하게 되었죠.

함께걷는아이들은 사업효과성을 연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걷는아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돈을 쓰는 조직이예요. 조직이 커지고 사업비가 늘어날수록 돈을 '잘' 써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업비를 받아가는 분들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하고, 사업 진행도 원활하게 잘 되어야 하고, 원래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결산보고서 작성까지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야 해요.
이런 과정들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즉 근거가 필요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저희가 하는 평가는 매출과 이익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영리기업과는 달라요. 물론 돈을 얼마나 잘 썼고, 악기를 얼마나 잘 갖추었고, 공간을 얼마나 잘 확보했는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의 만족도, 강사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도 중요한 지표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예요. 더 다양한 방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면 전체적인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타 비영리단체에서도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걷는아이들의 연구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보통 비영리단체에서는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많이 해요. 사회복지사업을 양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질적 연구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보편성을 잃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개별연구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사회복지, 아동 · 청소년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연구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완관계죠. 그런 면에서 올키즈스트라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키즈스트라 자체연구는 양적 연구이고, 협력파트너들은 주로 질적 연구를 하면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거로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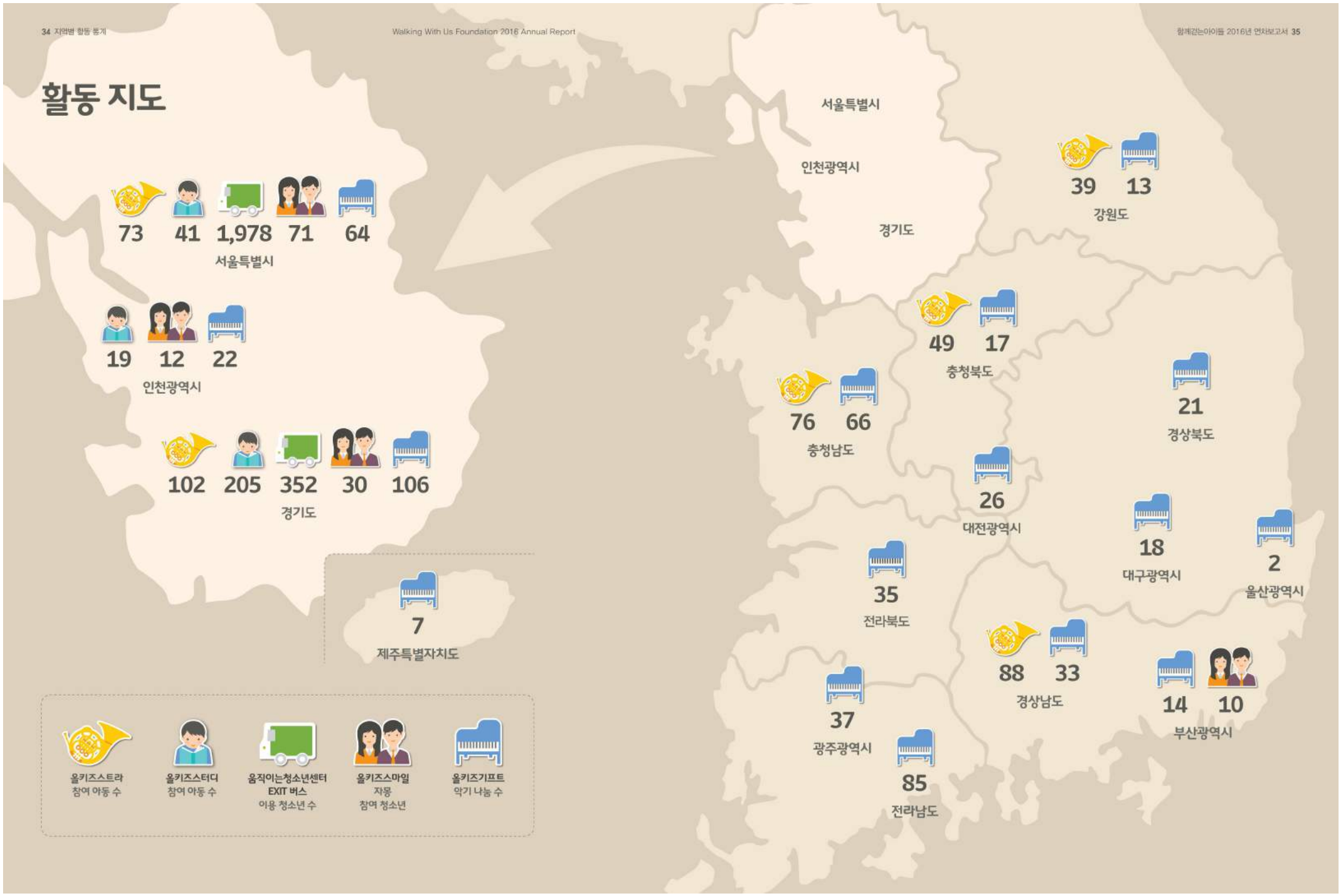
이런 연구들이 우리 안에서만 소모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보고서를 카드뉴스나 웹툰형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언론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겠죠. 함께걷는아이들이 8년 동안 일궈낸 성과들을 확산시키기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거나, 국회에서 입법화시켜서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연구와 관련하여 함께걷는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다면?

비영리단체의 사업에서는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에 매몰된 연구는 학술적인 논문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저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함께걷는아이들과 해나가고 싶어요. 제가 연구의 주체이긴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활동 지도


73 41 1,978 71 64
서울특별시
19 12 22
인천광역시
102 205 352 30 106
경기도
7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9 13
강원도
49 17
충청북도
76 66
충청남도
21
경상북도
26
대전광역시
18
대구광역시
2
울산광역시
35
전라북도
88 33
경상남도
14 10
부산광역시
37
광주광역시
85
전라남도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동 수
올키즈스터디
참여 아동 수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
이용 청소년 수
올키즈스마일 자몽
참여 청소년
올키즈기프트
악기 나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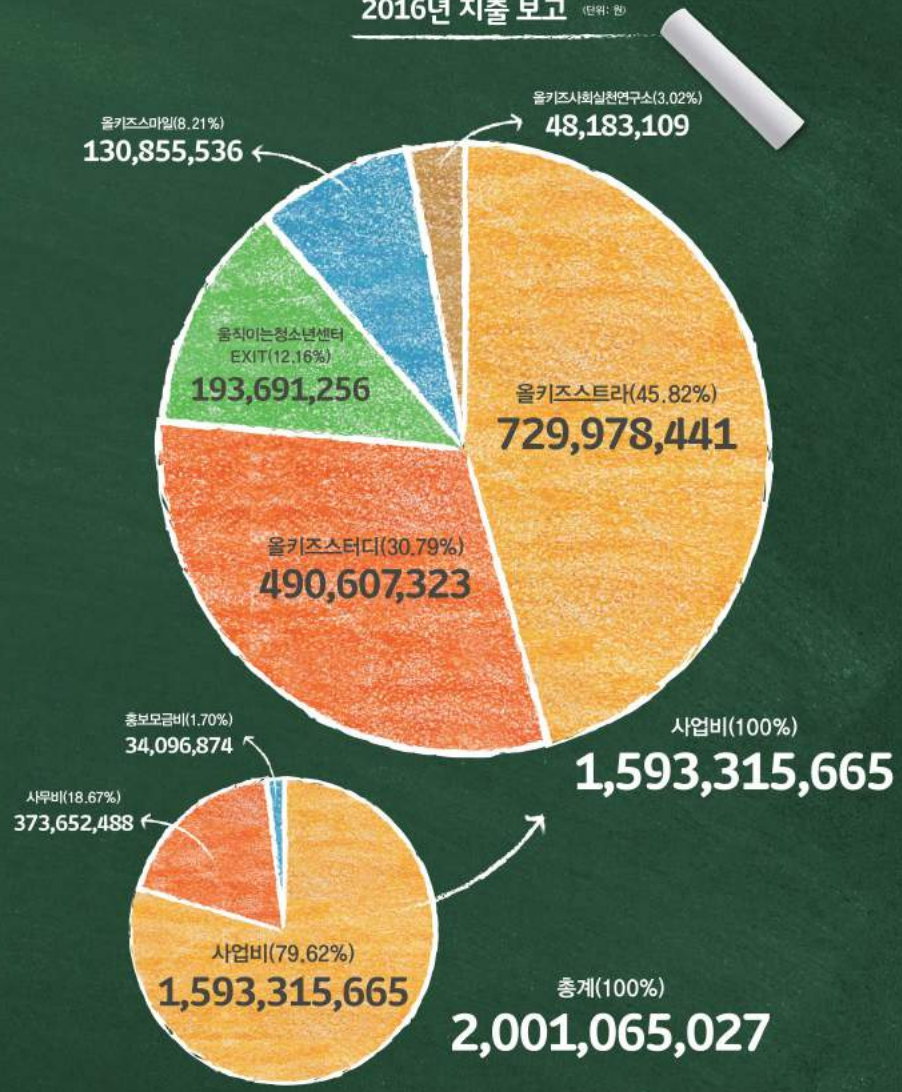
재정 보고

2016년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7(당)기		제6(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1,081,271,055		2,029,302,710
	(1) 당좌자산		1,081,271,055		2,029,302,710
	보통예금		1,080,222,283		525,203,920
	정기예·적금		0		1,501,112,798
	선급비용		584,242		565,852
	선납세금		464,530		2,420,140
	(2) 재고자산		0		0
	Ⅱ. 비유동자산		1,024,422,380		47,447,142
	(1) 투자자산		1,000,000,000		0
	장기성예금		1,000,000,000		0
	(2) 유형자산		23,407,360		47,147,142
	차량운반구	131,379,500		131,379,500	
	감가상각누계액	131,377,500	2,000	123,574,600	7,804,900
	비품	229,641,850		226,847,400	
	감가상각누계액	206,236,490	23,405,360	187,505,158	39,342,242
	(3) 무형자산		0		0
	(4) 기타비유동자산		1,015,020		300,000
	기타보증금		347,000		300,000
	기부자산		668,020		0
자산총계			2,105,693,435		2,076,749,852
부채	Ⅰ. 유동부채		16,899,254		10,222,886
	미지급금		13,203,224		7,233,276
	예수금		3,696,030		2,989,610
	Ⅱ. 비유동부채		100,488,738		73,591,169
	퇴직급여충당부채		87,442,798		57,864,1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45,940		15,726,989
부채총계			117,387,992		83,814,055
자본	Ⅰ. 자본금		1,000,000,000		1,000,000,000
	출연금		1,000,000,000		1,000,000,000
	Ⅱ. 자본잉여금		0		0
	Ⅲ. 자본조정		0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Ⅴ. 이익잉여금		988,305,443		992,935,797
	미처분이익잉여금		988,305,443		992,935,797
	(당기순손실)				
	당기: 4,630,354 원				
	전기: -210,908,640 원				
자본총계			1,988,305,443		1,992,935,797
부채및자본총계			2,105,693,435		2,076,749,852

2016년 지출 보고 (단위: 원)



후원자 명단

개인 기부

강성선 · 강혁 · 고병헌 · 고봉찬 · 권익상 · 권혜민 · 김규형 · 김나희 · 김서인 · 김선규 · 김선혜 · 김성자 · 김성현 · 김성혜 · 김순응 · 김신원 · 김연 · 김연준 · 김영소 · 김지영 · 김종윤 · 김주원 · 김지연 · 김철종 · 김현수 · 김현아 · 김현주 · 김형규 · 나혜경 · 남인순 · 노근창 · 노세진 · 노세호 · 목갑수 · 박간 · 박미애 · 박서진 · 박석준 · 박선아 · 박성순(문경민) · 박은경(김태수) · 박은영B · 박은희 · 박정숙 · 배서영 · 백기원 · 백석기 · 서덕자 · 서동우 · 석주성 · 손주영 · 송대섭 · 송재화 · 신용식 · 신종삼 · 안유선(김연진) · 오솔 · 오순옥 · 유경재 · 유수용 · 유양모 · 유용균 · 유정임 · 유지선 · 윤대연 · 윤미자 · 이동희 · 이명희 · 이민영 · 이선미 · 이원재 · 이윤정 · 이인영 · 이재표 · 이정은 · 이조앤 · 이조영 · 이현진 · 이현희 · 임순영 · 임순자 · 장용석 · 전성윤 · 전예솔 · 전진희 · 전현경 · 전현주 · 정수혜 · 정영태 · 정일룡 · 정일우 · 정진경 · 정찬대 · 조소영 · 조운영 · 조재서 · 조재완 · 조재형 · 조혜연 · 주형준 · 주희정 · 채철호 · 최상규 · 최양심 · 최우혁 · 최주혁 · 최창희 · 최현서 · 한수자(최윤환) · 한용희 · 함영우 · 허미창 · 홍기원 · 홍문자 · 홍성필 · 홍원표 · 홍정원 · 홍혜진

50만 원 이상

권도희 · 김경욱 · 김은희 · 김재우 · 김현경 · 김현수 · 노승우 · 노윤정 · 노정호 · 류정아 · 박은영A · 박주현 · 백승진 · 상미현 · 유금미 · 유원선(주조양) · 이강배 · 이강욱 · 이경림 · 이기홍 · 이석범 · 이영렬 · 정성이(김혜성) · 정인 · 정호진(유성문) · 조순실 · 조승래 · 조양래 · 조영석 · 조철래 · 조현식 · 조현진 · 조희경 · 차기환 · 홍명자 · 홍헌호

기업 및 단체 기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다온에스디 ㈜큰그림

50만 원 이상 ㈜갤러리바톤 ㈜현일코프레이션 신성일렉트로㈜ 우리은행 동역삼동금융센터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기금

노재원 · 조재선 추모기금 노윤정 노정호 노민정 노승우 조희경 후원
올키즈스트라에서 음악전공을 준비하는 2명의 단원에게 장학금과 음대생이 된 2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김호겸 추모기금 홍명자 홍문자 조현식 후원
올키즈스트라에서 음악전공을 준비하는 3명의 단원에게 장학금 지원

제3호 음악전공생 장학기금 류정아 후원
올키즈스트라에서 음악전공을 준비하는 1명의 단원에게 장학금 지원

김경욱바오로기금 김경욱 후원
올키즈스터디에 참여하는 기초학습 부진아동 15명에게 일대일 수업 지원

악기 나눔 캠페인 - 올키즈기프트 참여

개인

강민혜(바이올린 1대) / 김동원 · 박명자(바이올린 2대, 첼로 1대, 플루트 1대, 가야금 1대, 피리 1대) / 김보미(바이올린 1대, 통기타 1개) / 김슬기(전자피아노 1대) / 김연자(피아노 1대) / 김영희(바이올린 1대) / 김윤정(피아노 1대) / 김지우(바이올린 1대) / 김철중(피아노 1대) / 김현주(바이올린 1대) / 노순영 (피아노 1대) / 도경연(피아노 1대) / 레이첼 캘훈(클라리넷 1대) / 류정아(첼로 2대, 바이올린 1대) / 무명(첼로 1대, 바이올린 3대) / 문지영(피아노 1대) / 박경옥(피아노 1대, 플루트 1대) / 박경진(일렉기타 1대, 엠프 1개) / 박성아(어쿠스틱기타 1대) / 박소은(피아노 1대) / 박수린(통기타 1대, 클라리넷 1대) / 박은정(클래식기타 1대) / 박하늘 · 손유민 · 양승리 · 이지민(바이올린 1대) / 박혜원(바이올린 1대) / 방정희(피아노 1대) / 배서영(우쿨렐레 1대, 전자피아노 1대) / 서유미(피아노 1대) / 서윤희(클라리넷 2대) / 송경용(플루트 1대, 클라라넷 1대) / 신다솜(피아노 1대) / 신은영(첼로 1대) / 안수경(플루트 1대, 전자오르간 1대) / 양병훈(바이올린 1대) / 유성원(기타 1대, 플루트 1대, 우쿨렐레 2대) / 이상원(첼로 하드케이스 1개) / 이시원(클래식기타 1대) / 이용범(바이올린 1대, 클래식기타 1대, 일렉기타 1대) / 이은구 · 장현주(피아노 1대) / 이장욱(피아노 1대) / 이지선(바이올린 2대) / 이현석(일렉기타 1대) / 임정숙(첼로 1대) / 정경희(바이올린 1대) / 정광호(바이올린 1대, 플루트 1대) / 정원경(전자피아노 1대) / 정유민(첼로 1대) / 정은미(바이올린 1대) / 정의순(피아노 1대) / 차미란(플루트 1대) / 최상기(피아노 1대) / 최은영(바이올린 1대) / 하정림(피아노 1대) / 한승혜(우쿨렐레 1대) / 한지혜(클래식기타 1대, 플루트 1대) / 황형호(첼로 1대) / K(기타 1대)

기업 및 단체

삼아프로사운드㈜(통기타, 일렉기타, 우쿨렐레 등 440여 대) / 우리들의 낙원상가(바이올린 34대, 플루트 15대, 호른 1대, 윈드차임벨 1대)

해피빈 모금 모금액 348,800원

해피빈 「음악으로 '행복한 오늘'을 살아요.」 200명의 콩 기부자님
해피빈 「"나도 악기가 갖고 싶어요."」 10명의 콩 기부자님

특별후원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함께 만드는 연주회' 시민 후원금 **343,650원**
코딱지도 할 수 있어요 캠페인 후원자 참여 적립금 **175,000원**
우리들의 낙원상가 '멋진 하늘' 공연 티켓 후원 **30매**
홍기원 음악극 '봉장취' 공연 티켓 후원 **32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주식회사 빵 **180개**
SM엔터테인먼트 바자회 수익금 **9,101,500원**
피아니스트 조재혁 후원 **3,000,000원**

후원 참여 방법

정기 후원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 후원

함께걷는아이들은 기부자님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아이가 환경에 상관없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키다리 어른이 되어주세요.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문화소외 아동 지원**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음악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 **학습부진 아동 지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잠재능력 발휘하도록 일대일 학습 지원
- **청소년 자립 지원** 긴급 구조·청소년 주체성 확립·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조성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함께걷는아이들은 올키즈스트라 '전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음악가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음악 전공생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해주세요.

올키즈스트라 「전공 지원」프로그램

음악적인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올키즈스트라 친구들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물품 기부

악기 나눔 캠페인, 올키즈기프트 Allkidsgift

- 사용하지 않는 중고 악기, 새 악기를 기부하세요.
-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기부받은 악기를 나눔 합니다.
-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악기 기부도 가능합니다.

후원 안내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301-69556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문의

- 전화: 02-522-7935 함께걷는아이들 기획홍보팀
- 이메일: together7935@hanmail.net
- 정기후원은 홈페이지(www.withu.or.kr) '후원'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